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주소 :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88 301호

대표 : 복성경

전화 : 051-802-0916 H: <http://www.bssimnet.or.kr> E-Mail: buun1@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시행일자 : 2022년 2월 15일

발 신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제 목 : [성명] 언론사 책무 내팽개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물러나라!

김진수 사장이 투자한 것은 1억이 아니라 부산일보에 대한 시민의 신뢰이다 언론사 책무 내팽개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물러나라!

고작 1억이 아니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건설사 대표 펀드에 투자한 것은 1억이 아니라, 자본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지켜야 하는 언론사 사장의 책무였으며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였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사 사장이 일요일 저녁 시사프로그램의 아이টে으로 등장한 그 날, 건설사 대표와 투자공동체를 형성한 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날. 더는 부산일보가 권력과 자본 앞에 당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와 부산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다.

신문의 핵심 자산인 독자와의 소통 기구를 무력화시켜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전락시킨 김진수 사장. 언론사의 공익성 실현은 내팽개쳐졌고, 부산일보는 처음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사에서 탈락했으며 그 피해는 독자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김진수 사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건설사 대표와의 수상한 유착 의혹 이외에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된 이 상황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사장이 무너트린 신뢰를 회복하고자 기자회견, 삭발, 천막 농성을 시작한 부산일보 노동조합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부산일보 바로 세우기'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낸다.

부산일보 바로세우기 투쟁 162일째. 김진수 사장은 지금 당장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사퇴만이 무너진 부산일보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김진수 사장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부산일보 구성원은 물론이고, 사익과 언론인의 공적 책임을 맞바꿔도 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언론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타협이란 없다.

정수장학회에도 요구한다. 김진수 사장을 해임하라. 부산일보의 이름을 더럽힌 부도덕한 인사를 사장으로 연임시킨다면 언론사로서의 가치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독자와 시민사회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결단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15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